

청년의 지방이주와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소멸 위기, 청년을 붙잡는 지역

‘마을이 사라진다’는 경고와 함께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분석 자료가 발표된 지 4년이 경과한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현실로 마주하게 되었다.**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지금,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 늘리기 대책은 지방도시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지난 10년간 전국의 청년인구는 매년 2% 수준의 감소율을 보였고, 특히 인구 50만 미만의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감소율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나타나면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지방도시에서는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청년정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23개 시·군 중 82.6%(19곳)가 소멸위기지역인 경상북도는 가장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연구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년인구 정착을 모색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청년인구 순수입이 발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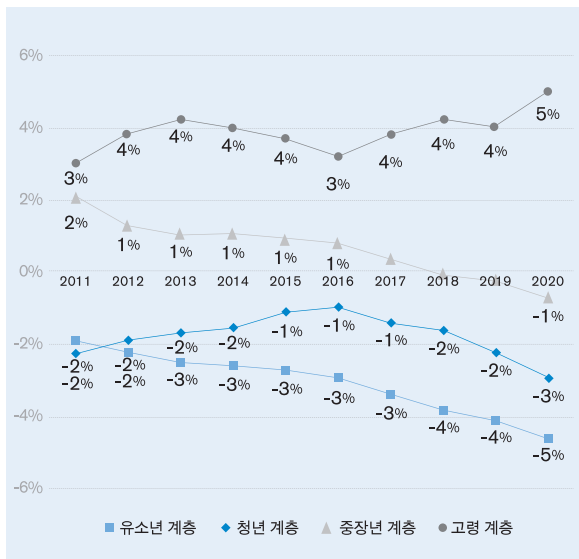
* 이 글은 장민영 외(2021)의 일부 내용을 발췌·보완하여 작성하였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인구 자연증가(출생-사망)가 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4만 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1908년) 이래 최초 자연감소하였고,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추월하였다. 또한 소멸위험지역이 증가하여 228개 시·군·구 중 105개(45%)에 육박하면서 지방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통계청, 2020; 통계청, 2021; 관계부처 합동, 2021).

*** 통계청의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2011~2020)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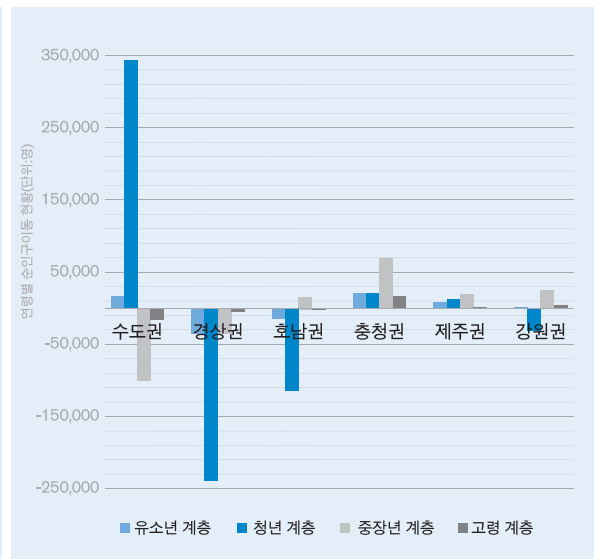
는 지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청년정책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상림, 2020).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그간의 청년정책은 출산·양육·귀농 지원금 지급, 창업지원이나 고용 창출 등 주로 소득이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세대의 문화와 성향은 이러한 경제적 요인만으로 청년들의 지방 유출을 막을 수 없으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엄창옥 외, 2018, pp.50-53; 박진경·김도형, 2020, p.47). 청년세대의 주를 이루는 MZ세대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남과 다른 이색적 경험을 추구하며 사회적 관계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소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유로운 생활과 특정 공간에서의 경험을 선호하면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어 하거나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변화된 인식과 성향을 이해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연령별 인구 증감률 변화(2011~2020)

출처: 통계청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2016~2020)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내이동통계

OO에서 한 달 살아보기

2010년대 초반, 지방이주 관련 정책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여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을 대비한 귀농·귀촌마을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도시재생이나 축소도시 전략 마련과 함께 귀농·귀촌 중심의 지방이주 지원정책에서 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전략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의 주요 대상이 ‘청년’으로 집중되면서 ‘OO에서 한 달 살아보기’나 ‘먼저 살아보기’와 같은 단기 체류 프로그램부터 일자리 경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 등 청년들의 지역살이와 지방이주에 대한 각양각색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과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경상북도의 ‘도시청년 시골과건제’,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등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창직·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욱이 2022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자될 계획이며,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이 주요 시책에 포함되어 앞으로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uri



청년 대상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공간
강원도 강릉의 파도살롱(코워킹스페이스, 좌), 전라북도 완주의 로컬베이스캠프(복합공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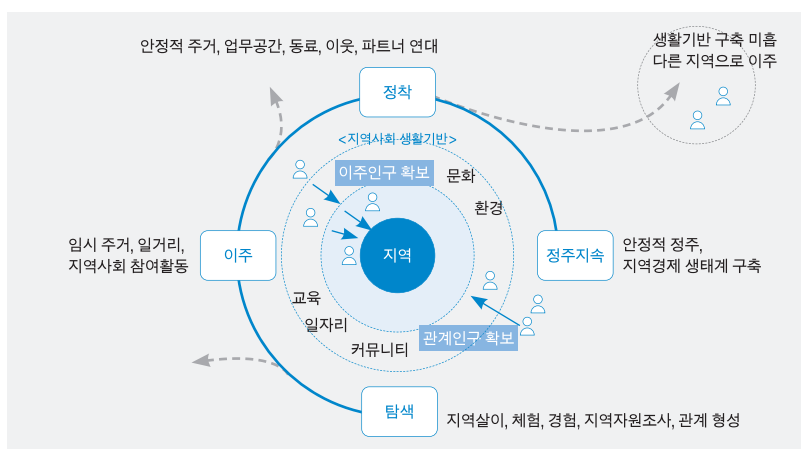
©강진구
마을만들기
재단

지방이주, 라이프스타일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

직장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이사’라고 한다면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이사를 ‘이주’라 할 수 있다(高和雄, 2017, p.5). 지방이주는 비수도권 지역으로 생활기반을 옮기는 현상으로, 지역에서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고 필요한 생활 서비스로의 접근이나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을 넓혀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김정섭 외, 2018, p.35). 즉 지방이주는 청년의 라이프스타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변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

청년의 지방이주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매체를 통해 지역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는 ‘탐색단계’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거처를 옮겨가 지역 활동에 참여하거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주단계’, 이어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활동공간과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는 ‘정착단계’, 마지막으로 지역 내 장기적인 활동참여 여건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정주지속단계’이다. 특히 이주청년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정주지속’의 단계는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이나 지역 여건이 갖추어진 상태라 할 수 있다.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단계에 따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인프라와 지원정책, 청년공간의 수요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 유입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단계별 특성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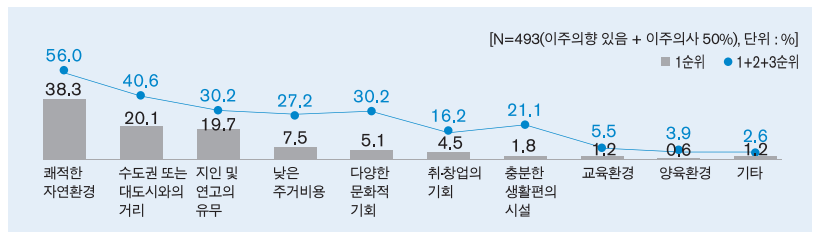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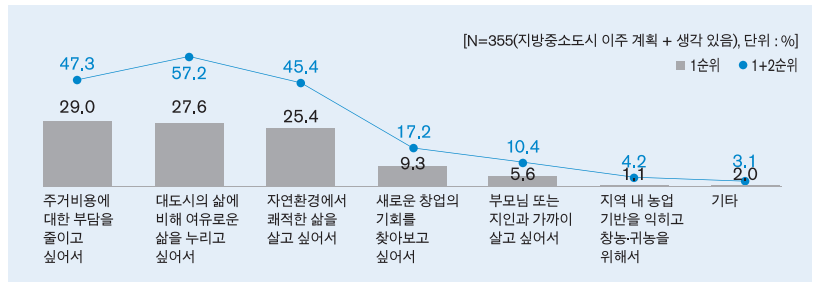


지방이주 단계와 정주지속의 개념
출처: 장민영 외(2021, p.6) 일부 수정

로컬 지향의 청년들이 꿈꾸는 리틀 포레스트

2018년 개봉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고향으로 돌아간 도시청년의 여유로운 시골의 ‘슬로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많은 젊은이에게 지방이주에 대한 로망을 꿈꾸게 하였다. 최근에는 ‘오느른’과 ‘냥숲’ 등 시골 일상을 담아내는 유튜브 채널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가 트렌드로 주목받을 만큼 한적한 지역살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지방이주는 지역에 관심이 생기거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어 보고 싶다는 욕구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 세대를 중심으로 스마트워크·리모트워크·워케이션 등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로컬 라이프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및 특·광역시 거주 청년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이주를 고려해 본 청년은 59.2%로 집계되었으며, 그 이유로는 ‘주거비 부담 경감(29.0%)’이 가장 많았으나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27.6%)’와 ‘자연환경에서의 쾌적한 삶(25.4%)’에 대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쾌적한 자연환경’, ‘수도권·대도시와의 거리’, ‘지인 및 연고의 유무’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방이주를 고려한 이유(상), 지방이주 희망지역 선호 이유(하)

출처: 장민영 외(2021, p.42, p.231)

* 김난도 외(2021)에서는 러스틱 라이프를 낚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며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스타일이라 하며, 러스틱 라이프를 4단계(1단계 ‘그냥 떠나기’, 2단계 ‘잠시 머무르기’, 3단계 ‘자리 잡기’, 4단계 ‘등지 틀기’)로 구분하였다.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한 과제

정주인구에서 관계인구까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시급성 때문에 청년인구 확보를 위한 정책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주민등록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년 이상 계속 거주자’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지원정책은 정착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기반을 만들어 가려는 청년들에게는 적시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소지 이전이나 거주연수에 대한 조건 없이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군산시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거주연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 지역 기반의 다양한 로컬 창업을 지원하였던 ‘로컬라이즈 군산(SK E&S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참가팀 상당수는 프로젝트 종료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지역창업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정적인 정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 서울시의 ‘넥스트로컬’이나 충청남도의 ‘충남형 청년갭이어 프로그램’에서는 주소지 이전의 조건 없이 외지 청년들에게 지역자원조사나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지역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정주인구를 넘어서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것은 지방이주 잠재력을 가진 청년인구를 찾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청년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한편으로 로컬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재 청년세대의 특징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관계인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관계인구 청년들이 이주와 정착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역과의 거리를 좁히고 지역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내 일자리나 부동산 정보와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이주 컨시어지 기능의 공간으로서 ‘관계안내소’**를 마련하는 것도

* 언더독스 대표 및 디렉터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1.1.27.)

** 일본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장소를 관계안내소라 하여 빈집·폐교 등을 활용해서 장소를 만들거나 가상공간이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계안내소는 지역 주민과 관계인구가 교류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이프스타일의 다화와 係人口にする懇談, 2021, pp.46-52)



관계안내소 기능을 하고 있는 충남 공주의 반죽동 247과 충북 충주의 세상상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관계안내소는 공공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으나 ‘관계안내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카페나 서점, 코워킹 스페이스,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장소가 관계안내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주 감영길에 위치한 ‘반죽동 247’은 지역으로 유턴한 청년이 운영 중인 카페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고 마을 안내나 지역살이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충주 관아골의 ‘세상상회’ 역시 이주청년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로, 충주의 로컬 굿즈를 판매하는 로컬 상점이기도 하면서 청년들의 복합문화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이미 지역의 관계안내소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이주 단계별 거주공간의 전략적 지원

지방이주 과정에서 ‘거주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며, 외지청년들에게 질 좋은 거주공간에서의 경험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거주공간은 지방이주 단계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발생한다.

우선 ‘탐색단계’는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구득하고, 지역살이나 청년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는 시기이다. 따라서 ‘게스트하우스’처럼 단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또 ‘이주단계’는 본격적으로 지역에 이주하여 생활을 하는 시기로,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안정적 거주공간이나 창업공간 등을 모색하는 때이다. 이주초기단계에는 1년 미만 단위로 머무를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이주에서 정착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5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어 ‘정착단계’는 지역정착과 정주 가능성을 확인하고 중장기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는 시기로,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찍부터 청년정책을 추진해 온 전북 완주군에서는 ‘청년, 완주살이(게스트하우스 및 프로그램 제공)’, ‘청년셰어하우스’, ‘청년행복주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주거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의 이주 초기 주거부담을 덜어줘 지역 이주 결심과 정착 과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청년층의 정주촉진과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지방도시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입주하지만 5년 후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양도형 정주촉진주택이나 20년을 계속 거주하면 토지와 주택을 무상 양도하는 임대단독주택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방이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비용경감이나 주거 취약청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지만, 청년인구 유입과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도시 주거 지원정책은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 청년과 지역사회의 관계 맺기, 방문청년이나 관계인구 청년을 위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을 바탕으로 거주공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수요를 고려한 거주공간의 다양성 확보와 품질 제고는 지방도시 청년정책의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 전북 완주군으로 이주한 청년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1.5.27.)

** 一般財団法人 移住・交流推進機構. <https://www.iju-join.jp/> 참조

청년, 완주살이

- 완주 경험을 희망하는 타 시·군 청년 대상
- 게스트하우스 숙박비 80% 지원, 완주 탐방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 운영

청년쉐어하우스

- 완주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 주거취약계층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주거 지원(최대 3년)

청년행복주택

- 완주군에 거주 중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
-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최대 6년의 입주기간

전북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정책

출처: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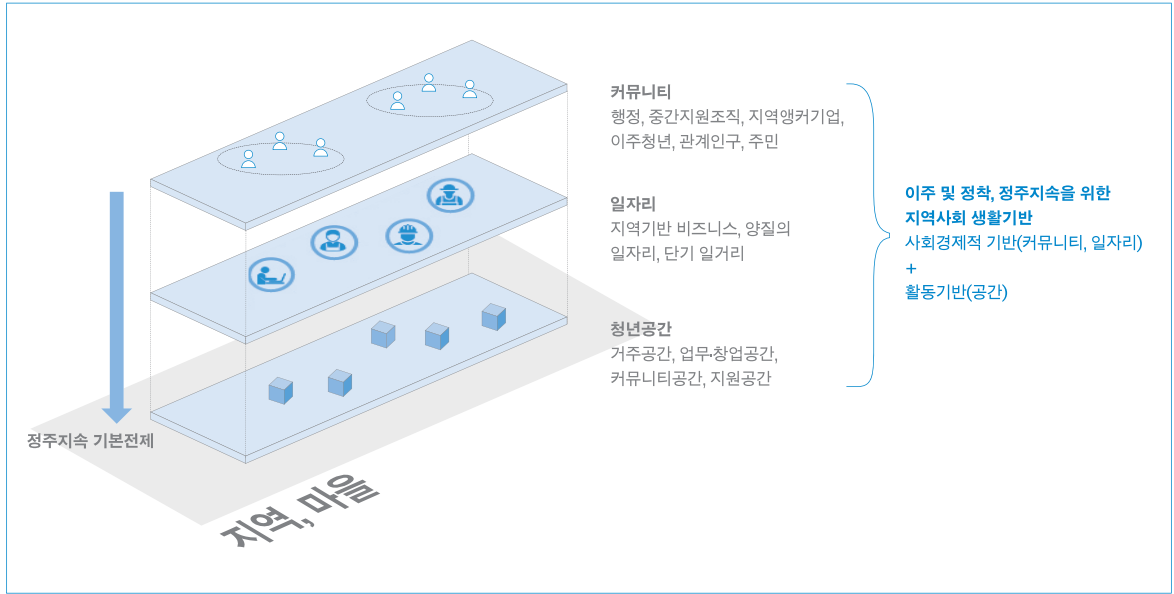
커뮤니티, 일자리, 청년공간

충남 서천과 공주, 전북 완주, 전남 목포 등 전국 도처에서 청년들의 지역 살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참가 청년들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 내 커뮤니티 활동, 일자리 및 일거리 등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과 함께 청년들의 활동기반이 되는 인프라로서 다양한 기능의 청년공간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지방이주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이주절차 안내, 지원정책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등의 중간지원기능과 함께 지역에 먼저 정착한 선배 그룹이나 지역생활 멘토가 되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주민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이 안정적인 지역살이와 정주지속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이주초기 머물 수 있는 임시주거나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커뮤니티 공간, 실험·팝업공간, 중간지원센터 등 지방이주 단계별 특성과 청년수요에 대응한 청년공간 조성 과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나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팝업공간(충남 공주의 크림, 마주안)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기반 구축 방향

출처: 장민영 외(2021, p.8) 일부 수정

특히 지역에서의 일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공간 또는 팝업공간은 지역살이 중인 청년들이나 이제 막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이다. 충남 공주에는 유희공간을 탈바꿈하여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 전시나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팝업공간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다. 청년들은 이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지역살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 볼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 내 소비 특성이나 수요를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역의 잠재자원인 청년주체의 발굴과 성장지원

청년의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위해서는 결국 지역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유희공간 재생을 통한 청년공간 조성, 지역살이 프로그램 운영, 청년 거주공간 마련을 위한 사회주택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지역의 앵커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인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때 소수의 스타 플레이어가 부각되는 데 그치지



지방이주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 속초 소호259(게스트하우스)와 고구마쌀롱(여행자 컨시어지), 강릉 소집(갤러리)

않고 지역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청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팀 빌딩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강릉·속초·춘천 일대에서는 지역으로 이주한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원지역은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고 청년인구 비율도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주청년들의 로컬 기반 활동은 지역 발전의 잠재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강원지역의 대표적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로는 강릉의 더웨이브컴퍼니(코워킹스페이스 운영), 갤러리 소집을 운영 중인 U턴 청년, 속초의 소호259(게스트하우스, 여행자 컨시어지 운영), 춘천의 춘천일기(로컬상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이 있다.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정착한 청년들은 구도심 내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개성 있는 창업공간을 조성하기도 하고, 지역청년이나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맺음말

청년들의 지방이주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이주 및 정착 과

정은 구직 과정이나 거주지 이전이라는 선택만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정책 수단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김정섭 외, 2018, p.64).

지방도시의 인구 수, 도농복합시 또는 군 지역 여부 등 도시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청년들의 이주 목적과 생활패턴, 지역 내 필요한 공간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지역으로 이주한 형태(UIJ턴 등)에 따라 지역 사회 관계망 구축이나 일자리 창출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즉 청년의 지방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지역 맞춤형의 세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으로서 지방이주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방도시의 청년 유입책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지방이주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찾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고, 지속가능한 지역살이를 응원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

참고문헌

- 1 관계부처 합동. (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 2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이해원. (2021). 트렌드 코리아 2022. 미래의창.
- 3 김정섭, 신소희, 구분경. (2018). 청년의 지방 이주 지원 정책 추진 실태와 개선 방안. 청년허브.
- 4 박진경, 김도형. (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5 엄창욱, 노광욱, 박상우, 히구치 요시오, 오오타 소우이치, 이영준. (2018). 청년의 귀환. 박영사.
- 6 이상림. (2020). 청년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 위기.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장민영, 임보영, 송윤정, 윤주선. (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8 통계청. (202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 6월 29일 보도자료.
- 9 통계청. (2021).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2월 24일 보도자료.
- 10 라이프스타일의 다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談会. (2021). 最終とりまとめ：関係人口の拡大・深化と地域づくり.
- 11 嵩和雄. (2017). 地方移住の現代的意義：移住相談から見る田園回帰. NPOふるさと回帰支援センター.
- 12 완주청년정책 청년메카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 13 一般財団法人 移住・交流推進機構. <https://www.iju-join.jp/>